

## 아시아의 민주주의 : 개요

라오 몽 하이  
사회개발센터 법률담당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는 독립 이후에, 민주주의가 일부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인정되었다. 정당이 생기고 선거가 조직되었다. 그런 나라 중 소수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직의 지배자가 자유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를 곧 파괴하고, 대신에 “계도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이러한 지배자들은 곧 독재정권으로 변화된다. 이후 그들은 전복되어진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언론자유가 억압받으면서 민주주의가 편협하게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완전한 정치적 권리가 부정되어졌고, 집권당은 반대파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제한했다. 이러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비록 선출되어졌지만 독재자로 변해버렸다.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파괴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선출된 대통령이 비상계엄법을 만들고, 독재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군 장교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독재자가 되었다. 군부가 역시 태국을 지배했었으며,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도 추가해야 한다.

인도, 일본과 스리랑카 단지 3국에서, 민주주의가 그러한 운명을 경험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에,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투쟁을 경험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민

중의 힘이 그들의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극적인 전환이 있었다. 그리고 일년 후에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의 붕괴와 냉전의 끝은 이러한 항쟁을 촉진했다. 1992년에 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 1993년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가 캄보디아에 다시 왔다. 1998년에 권위주의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민주주의를 포용했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2004년에 인도네시아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첫 번째 직접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같은 해에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인도에서 선거가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발전은 다른 나라에서의 부정적인 발전에 의해서 손상되고 있다. 버마에서 1990년 선거로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군부 혼타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권력이양을 거부하면서 간단하게 무산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과 라오스는 여전히 독재세력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리고 부르네이는 절대적인 왕조로서 왕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나라의 일부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유리해 보이는 발전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방경선이 개최되었다.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인정된 독립적인 인사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공산주의국가인 중국, 라오스와 베트남이 시민 정치적 권리조약을 서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비록 아직은 비준은 아니지만 말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과 다른 국제인권 조약이나 기구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부르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시민사회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향상을 촉진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간을 더 넓게 열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민주적인 발전과 평행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법치적인 제도의 출현으로 부수적으로 인간에 의한 지배의 종식을 가져온 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을 강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만으로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고, 민주주의 그자체도 자유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아시아에는 아직도 다양한 정치적 시스템들이 있다.

1.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에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이 있다; 언론의 자유; 반대당이 진정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2. 선거민주주의,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비록 선거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족한 자유; 부족한 언론의 자유; 반대당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3. 일당체제, 즉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에는 정치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거의 없다.
4. 정치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완전한 독재

아시아에는 “아시아식의 민주주의”라는 브랜드가 있다. 그것은 권위주의의 부드러운 버전인데,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런 민주주의를 가진 아시아의 지배세력은 이 현상을 유지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시아인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브랜드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 인권과 근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즐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진 법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 아시아인들은 역시 시민사회 조직과 결사를 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그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완전히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든, 정착되어 있지 않든 모든 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격려해야 한다.

1. 유엔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이 되길 원하는 나라들에게 자격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준수를 잘 하고, 모든 관련 국제인권조약들을 서명한 나라여야 한다.
2.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 a. 모든 관련된 국제인권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 b. 소 지역적인(sub-regional) 인권조약을 채택하고 지역 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 c.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진 법치적 질서를 만드는 것
  - d.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위한 더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것
3. 아시아에서 모든 현존하는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새로운 시민사회조직은 그들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역적 네트워크에 참가해야 한다.
4. 더 진보적이고 더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조직은 그들의 취약한 형제자매를 지원해야 한다.

5. 아시아대학은 커리큘럼으로 민주주의학, 인권, 근본적인 자유, 시민사회를 포함해야 한다.

한국에 의해서 제안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10개의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 서명하였다. 이 제안은 모든 시민이 완전히 권리와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Democracy in Asia: An Outline

by Lao Mong Ha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Head of Legal Unit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or upon the recovery of independence, democracy was adopted in some countries.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ere recognized. Political parties emerged and elections were organized. Democracy in a few of those countries has continued up to now, but in the other countries it did not survive very long.

In Indonesia and Cambodia, the incumbent rulers soon distrusted liberal, multi-party democracy and replaced it with "guided democracy". Those rulers soon turned authoritarian. They were later overthrown. In Malaysia, democracy turned illiberal when press freedom was curbed, people were denied full political rights and ruling parties curbed and limited the activities of opposition parties. Rulers of that country, though elected, became authoritarian. In Burma, now Myanmar, the military seized power. The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ere squashed. In the Philippines the then elected president introduced a martial law and became a dictator. In South Korea, army generals took over the country and became dictators. It should be added that the military were also ruling Thailand and became dictators too.

Only in three countries, India, Japan and Sri Lanka, democracy did not suffer the same fate.

Since the mid-1980s democracy has experienced an upsurge in Asia. In 1986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in the Philippines when the People's Power there overthrew their dictator, and that country returned to democracy. A year later, a no less dramatic change also took place in South Korea when the dictatorship was put to an end and the country embarked once more upon democracy. The collapse of commun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gave more impetus to this upsurge. In 1992, Thailand ended its long series of military dictatorships and adopted democracy. In 1993, with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ocracy also returned in Cambodia. With the overthrow of authoritarian rule in 1998, Indonesia also embraced democracy. More recently, in 2004, democracy made more gains in Asia with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Indonesia and in Afghanistan. In the same year elections were held in Mongol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India.

This positive development of democracy has been and still is marred by negative developments in other countries. In Burma, the upsurge of democracy epitomized by the 1990 election was simply squashed when the military junta refused to hand over power to the victorious party in that election, 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led by the Nobel Prize Laureate Aung San Suu Kyi. North Korea, China, Vietnam and Laos are still ruled by dictatorships. In Brunei, the King rules directly as an absolute monarch.

In some of these countries there are developments which seem favourable to democratic development. In China, competitive village elections have been held. In Vietnam independent candidates approved by the communist party are allowed to stand for ele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China, Laos and Vietnam, communist countries, have moved to sign, though not ratify ye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rprisingly, in contrast to certain Asian countries such as Brunei, Malaysia and Singapore, which have not signed this International Covenant and a number of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emergence of the civil society has given impetus to the upsurge of democracy. This democracy has further opened up a political space for and/or enlarged the civil society whose growth seems to run parallel with democratic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 emergence of the rule of law and the concomitant end of the rule of men in several countries in Asia,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in 1997, came to consolidate this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elections alone can not be equated with democracy, nor this democracy itself can be equated with freedom. There are still a variety of political systems in Asia;

1. Liberal democracies (South Korea, Japan, Philippines and India) in which there are mor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ore press freedom; opposition parties do have a genuine role to play;
2. Electoral or illiberal democracies or authoritarian regimes in which, though elections are regularly held, there are less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less press freedom; and opposition parties have virtually no role at all;
3. One-party rule regimes, namely, the remaining communist countries, in which there is scarcely any political rights or press freedom;
4. Sheer dictatorships in which there are no political rights and press freedom.

It has been claimed that in Asia there is a brand of democracy called "Asian democracy" which is claimed to be a soft form of authoritarianism and which has been claimed to have ensured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a number of Asian countries. The ruling elites in countries with this Asian democracy have insisted on maintaining this status quo.

However, Asians should not content with this brand of democracy. As human beings, they should be able to enjoy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o the full, and these rights and freedoms should include free press. These rights and freedom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ith an independent judiciary. Asians should also be free to form associ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e able to protect those rights and freedoms as well as to participate fully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In order to deepen democracy in countries that have it and in order to extend democracy to countries that do not have it yet, Asian democracy activists should urge:

1. The UN to adopt the signing of all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good record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a qualifying criterion for countries to be able to have seats on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2. All countries in Asia
  - a. to sign and ratify all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respect the

- rights and freedoms as guaranteed by these instruments
- b. to adopt sub-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set up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 c.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ith an independent judiciary to protect human rights;
  - d. to allow more space for the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the society;
3. All existing and ne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sia to join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o be more effective in their work;
  4. More advanced and better endow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assist their weaker sisters;
  5. Asian universities to include in their curriculums the stud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rule and the civil society in their curriculum.

The "East Asian Community" as initiated by South Korea and endorsed by the 10 ASE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should be a democratic one in which every citizen can fully enjoy his rights and freedoms.